

POLITICS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민주 새 원내대표 ‘강성 친명’ 대결 누가 웃을까

지방정가

“광주 인구 140만명 붐과”
조석호 “청년 이탈 원인”

광주시 인구가 140만명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특히 19~29세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사진)이 9일 광주시 교육청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광주시 청년인구의 이탈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가 매년 1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19~29세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지난해 광주시 감소 인구 1만912명 중 19~29세 청년이 92.5%를 차지한 1만102명에 달한다”며 “단순히 행정적 성과 달성만을 위한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과 성과 분석 시스템에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청년인구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단독사업은 타 부서의 협력사업이든 청년 정규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 일자리 마련이나 주거 기반 확보 등 실질적인 행동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4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순유출(6369명)이 가장 많았고, 도시경쟁력 약화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책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 극단 선택 사망 증가세
정다는 “경제적 이유 늘어”

광주지역 최근 3년간 자살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이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는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사진)은 9일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광주시의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경제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자살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4년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으며, 2022년 358명, 2023년 388명, 2024년 411명, 2025년 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 비율은 2022년 23.5%에서 2024년 31.6%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자살자의 40%는 40~59세 중장년층이었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자살예방 관련 사업에 약 22억원을 집행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정신응급대응체계관리 등 6개 사업에 약 9억원을 투입했다.

정다는 의원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살 증가는 고령 불안 등 복합적인 사회 위기에서 비롯됐고, 불행히도 대우위니아 법정관리와 금호타이어 화재와 같은 지역 사회 내 악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수년 내에 자살을 상습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현장 노력만으로는 자살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중장년층과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李체제 지도부 역임 김병기·서영교 맞대결

13일 공식 선출…첫 권리당원 표심 어디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는 13일 치러진다.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이 겨루는 양자구도다.

새 원내사령탑은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며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야당과 협치를 끌어내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하는 이번 경선에서 추첨을 통해 정한 두 후보자의 기호는 김 의원이 1번, 서 의원이 2번이다.

두 후보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3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를 시행하고,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표심은 20%가 반영되고 나머지 80%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가린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규를 개정해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 서 언 기자회견에서 “개혁과 민생의 양 날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회복하고 내란을 종식하겠다”며 “정부와 호흡을 맞춰 법과 예산을 지원하는 국회, 야당과 소통하며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출마 영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 재건의 첫걸음은 내디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고 험난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고 개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도부로서 활동을 한 진명(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서 의원은 이재명 1기 대표 시절 최고위원과 명대권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장과 협치인 대구·경북(TK)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1기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옌보

장. 지난해 총선에서 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뛰었다.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질 당시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한편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김성환·조승래·한병도 의원도 출마를 고려했지만 최종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경선 관련 포인트는 권리당원 표심이다. 권리당원 표심은 이날 기준 소속 의원 167명이 투표할 경우, 추가로 더해지는 41표 정도의 비중이다.

결코 비중이 적지 않아 만일 경선에서 두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질 경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후보가 저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유는 권리당원의 표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관저 만찬에 초

청된 두 의원은 이 대통령 양옆에 앉아 손을 맞잡은 사진을 찍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새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선출한다. 후보 등록 신청은 오는 14일이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현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바이오 신산업 육성 전략’ 모색

박세필 교수 초청 전남포럼…국가 대형 R&D 유치 강조

전남도는 9일 도청에서 박세필 제주대학교 교수를 초청, 전남포럼을 열어 급변하는 첨단 바이오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전남도가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미래 바이오 신산업 전략을 모색했다.

‘전남바이오 신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박세필 교수는 “전남은 일찍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해 국내 유일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첨단 바이오 기술력과 선도적 연계사업을 기반으로 국가 대형 연구개발(R&D)을 유치한다면, 단순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세계 바이오 신약 개발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포럼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9일 도청에서 박세필 제주대학교 교수를 초청, 전남포럼을 열었다.

전남도는 첨단 바이오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화순 생물의약품산업에서 지역 바이오 상장 1호기업인 ㈜박셀바이오 분사 신축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개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성과를 이어가며, 향후 ‘벨타이드’ 첨단신약 핵심기술 플랫폼 구축 등 연구개발 기반 확충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다문화가정 산모 돌봄 사업 추진

이주여성 10명 모집

광주시는 다문화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육 돌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다문화가정 산모돌봄미’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한국 거주 3년 이상, 자녀 출산 후 1년 이상 경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결혼이주여성고 고려인여성 10명이다.

결혼이주 산모들에게는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산모돌봄미가 산후조리에 필요한 정보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산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하며 당첨 시 3년간 해당점 제한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콜센터(062-225-2280)로 문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터 20일까지다. 광주북구가족센터 누리집(gjibukgu.familynet.or.kr)을 통해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ejufamily@hanmail.net) 또는 팩스(062-363-2964, 062-525-2963)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산모돌봄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산모돌봄미 활동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5시간으로, 한 가정당 70시간 활동한다. 시급은 1만3000원(식비 포함)으로 교통비가 지급된다.

산모돌봄미는 신생아 목욕, 산모의 영 양관리, 산후체조, 세탁물 등 청결 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

한일정상 첫 통화…“한미일 협력하며 위기 대응 노력”

“성숙한 한일 관계 만들자”…직접 만나 대화키로
대통령 “상호 국익 관점서 상생 가능 방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로 대일외교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9주째인 이날 이시바 총리와 25분간 통화하고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 이어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후 직접 만나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재난관리 ‘우수’…특교세 9000만원 확보

행안부, 예방·대응 등 40개 지표 평가…단체장 역량 호평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000여만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40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시정의 ‘제1책무’로 삼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돼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과 산업현장 근로자 등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

한 ‘찾아가는 안전캠페인’ 등 시책 추진, 생활안전을 위한 안전신문고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 책임자 대응 역량 강화 등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광주시는 최근 발생하는 재난이 기후변화·도시화·기술의존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단일재난에 그치지 않고 집중·복합재난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비·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도시경쟁력 강화의 대전제로 ‘안전은 필수다’라는 민선 8기 안전정책 방향을 설정해 이 같은 복합재난 극복과 재난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선운지구다사로음 공가세대 28세대 일반분양

20일 1순위 청약·23일 2순위 청약…27일 당첨자 발표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선운지구다사로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간 중 발생한 공가세대 28세대를 일반공급한다.

이번 공급 세대는 분양전환 기간 중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공가로, 오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1순위 청약

을 접수한다. 2순위 청약 접수는 23일이며, 당첨자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세대는 전용 49㎡ 19세대(분양가 1억9040만원), 전용 76㎡ 5세대(분양가 2억7650만원), 전용 84㎡ 4세대(분양가 2억9340만원)로 구성돼 있다.

기존 입주단지인 만큼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장점이며,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는 조건이다.

청약자격은 공고일 기준(10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월 납입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하며 당첨 시 3년간 해당점 제한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콜센터(062-225-2280)로 문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